

카카오톡상의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불링에서 친구관계의 영향과 여러 조건적 이슈들의 검증*

이성식**

국 | 문 | 요 | 약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0.03.31.1.1>

❖ 주제어 : 사이버 집단적 불링,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친구관계, 조건적 영향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18S1A5A2A01028699)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I. 서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도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 사용상에서 일어난다. 2014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창호, 2014)에서의 중, 고등학생 대상 사이버불링 조사에서는 여러 형태들 중에서 카카오톡상에서 신청거부나 대화방제외의 배제형태가 주된 형태임을 제시했고, 2014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승현, 노성호, 2014)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 따돌림의 실태조사에서는 카카오톡상의 따돌림이 주된 형태임을 제시했다. 이처럼 카카오톡의 단체채팅방에서의 사이버불링이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의 주된 형태임에도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상에서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더구나 단체채팅방에서 집단에 의한 집단적 불링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상에서의 사이버불링 중 특별히 단체채팅방에서 집단성원 여럿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집단적 불링의 원인을 다루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집단상황이라는 점에서 친구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사이버불링의 경우 채팅방에서의 친구 중 누군가 사이버불링을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 사이버불링을 학습하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그동안의 비행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하듯이(Warr and Stafford, 1991),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도 비행친구로부터의 영향에서 비롯될 수 있고, 더구나 집단적 불링의 경우 모바일 메신저상의 단체채팅방에서의 사이버불링은 사이버불링을 주도하거나 과거에 사이버불링의 전력이 있는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이 크고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불링에서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을 다룸에 있어 그 영향이 여러 요인들에 따라 조건적인지의 논의와 이슈가 있다. 첫째,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집단적 사이버불링에서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회이론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은 반드시 불링친구로부터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친구들을 포함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시간을 보내다가 비구조화되고 감독이 없는 가운데 우연히 불링을 저지를 수 있다(Osgood et al.,

1996). 그런 점에서 사이버불링경험 친구와의 접촉과 단순히 친구와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시간의 두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통합적 논의에 따라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이외에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그 영향력이 높을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이 과연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비행친구의 영향은 그 친구가 친밀한 아는 사이일 때 크다는 점에서 소집단일 때는 크지만 사이버공간에서처럼 교류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모르는 사이도 많을 경우 그 곳에서 만난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이 카카오톡 네트워크 크기가 소규모일 때와, 중간, 그리고 대규모일 때 그 크기에 따라 차별적이고 조건적인지를 다룰 것이다.

셋째,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은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불링에서 개인의 역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집단적 불링에서의 역할을 주동자, 적극가담자, 보통가담자, 소극가담자, 방관자 등으로 구분할 때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은 자신이 주동자이거나, 방관자, 소극가담자보다는 적극가담자나 보통가담자에게서 더 클 수 있는데 과연 집단에서의 역할에 따라 그 영향이 조건적인지를 다룰 것이다.

넷째, 또 다른 논의로서 일반이론(Gottfredson and Hirschi, 1990)에 따르면 비행친구의 영향은 중요하지 않고 사이버불링과 같은 비행 설명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요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를 살펴볼 것이며, 또한 통합적 논의에 따라 과연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은 낮은 자기통제력과 상호작용하여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에게서 조건적으로 더 작동하는지를 다뤄보기로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기존에는 부족했던 카카오톡상의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불링의 설명을 위해 사이버불링에서의 친구의 영향력을 다룸에 있어 그 영향이 어떠한지 그렇지만 그 영향은 여러 요인들에 따라 조건적인지 등 여러 이슈와 쟁점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 연구결과를 통해 대책방안 등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에 주목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친구관계 영향력에 관한 기존 주요 논의

비행원인 연구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다.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주위의 친한 친구가 비행친구일 경우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모델링이나 강화과정을 통해 비행가치나 태도를 학습하게 됨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고, 이처럼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태도학습이 비행설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Sutherland, 1947; Akers, 1985).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다른 이론들의 요인들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한 사회유대(사회통제이론)가 낮고, 낮은 자기통제력(일반이론)의, 그리고 일상긴장(긴장이론)의 청소년들도 비행친구와 사귀게 됨으로 해서 비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Matsueda, 1982; Warr and Stafford, 1991; Chapple, 2005).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온라인 사이버비행에도 적용되어 사이버공간에서 비행친구나 위반자와 접촉할수록 사이버비행을 더 저지르게 되며(Skinner and Fream, 1997; Higgins et al., 2007), 사이버불링 연구에서도 국내에서는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를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전신현, 이성식, 2010; 김경은, 2013; 남상인, 권남희, 2013; 이성식, 전신현, 2015).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오프라인과 비교할 때 그 관계가 익명과 비대면이고 친밀한 사이는 아니어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인터넷상에서보다도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상의 사이버불링은 그룹채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로 모르는 확대된 네트워크상의 관계보다는 친한 친구들이고 현실기반의 서로 아는 친구들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과정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이성식외., 2016).

그렇지만 여럿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집단적 불링의 경우는 그러한 학습과정 이외에도 그것이 집단현상이라는 점에서 집단의 동조압력과 같은 집단역학과정을 통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집단과정이론(Briar and Piliavin, 1965)에 따르면 집단상황에서는 집단심리로 비행동기가 급상승하고 또한 집단압력의 상황동기에 의

해 집단행동에 가담한다고 보았다. 집단따돌림이나 불링에서는 가담에 있어 책임의 분산이 일어나고 또한 자신이 동조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배척당하고 불링피해를 당할 염려 때문에 불링에 참여하기도 한다(이성식, 전신현, 2000). 또한 집단상황에서는 개인의 가치나 정체성을 상실하고 집단정체성이 상승하여 집단행동에 빠져들 수도 있다(Reicher et al., 1995).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을 저지른 친구와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친구들과 밤늦게 함께 다니다가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Osgood et al., 1996). 고전주의 학파에 근거한 기회이론에서는 비행발생의 기회요인을 중시했는데, 기존에는 주로 피해자 연구를 중심으로 그 이론을 다뤘지만(Hindelang et al., 1978; Cohen and Felson, 1979; Meier and Miethe, 1993),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비행기회에의 노출 등 비행기회가 많고 수월할수록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집밖에서 비구조화되고 감시되지 않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연한 기회에 비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하고 있다(Haynie and Osgood, 2005; Anderson and Huges, 2009; Weerman et al., 2015).

사이버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회이론의 논의가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이성식, 2014). 즉 인터넷이용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우연한 비행기회에 노출됨으로 해서 우발적으로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그와 같은 기존 논의에서 볼 때 친구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다룰 필요가 있는데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불링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Meldrum과 Clark(2015)는 친구와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음주나 마리화나 사용, 그 밖의 다양한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와 같은 오프라인의 비행이외에도 온라인 사이버불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서 보면 사이버불링친구와 접촉할수록 불링 가능성이 높고 기회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에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불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논의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들과의 접촉이 아니라 그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불

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차별접촉이론과 기회이론의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은 그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따라 그 시간이 많을수록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이버불링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연한 기회에 집단적 불링을 더 저지르게 될 것이다.

2. 친구의 영향에서 네트워크의 크기와 가담자 역할의 조건

사이버비행 연구에서는 친구들의 영향력을 다룰 때 온라인 네트워크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차별접촉이론에서도 주장했듯이 그것이 친한 친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집단이나 네트워크에서의 친구관계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집단이나 친밀한 사이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Haynie, 2002). 물론 보다 큰 규모의 비행친구집단이 상황적 유인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주장도 있지만(McGloin and Piquero, 2009), 친구집단의 영향력은 그 크기가 어느 수준까지에서만 작동하며 그 수준을 넘어서 클 때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는 특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친구의 영향력을 다룰 때 중요한데 온라인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며 온라인에서 네트워크 크기가 클 경우 그 곳에서 만나는 친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카카오톡상의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을 다룸에 있어 카카오톡상에 단체채팅방의 참여자의 수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채팅방이외의 등록된 친구의 수가 많거나 네트워크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사이버불링친구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력은 상쇄되어 낮을 수 있다. McCuddy와 Vogel(2015)의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범위반예의 노출의 영향력을 다루었는데 그 영향력은 네트워크 크기가 어느 정도 중간일 때 가장 컸고 그 크기가 소규모이거나 지나치게 클 경우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런 결과는 사이버비행을 다룰 때에는 집단크기를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어느 여건에 상관없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집단적 불링에서는 개인의 역할에 따라 친구의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집단적 불링에서는 개인의 역할이 주동자, 적극가담자, 보통가담자, 소극가담자, 방관자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도움자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자와 도움자는 별개로 하고 사이버불링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주동자는 사이버불링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그의 방관자는 아무 가담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하며, 소극가담자는 그 행위가 옳지 않은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단역학에 의해 불링에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면 보통 그리고 적극가담자일수록 주동자와 보다 가까운 사이에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이버불링에 가담할 수 있다. 즉 주동자 자신은 자신이 당사자이어서 불링친구로부터의 영향을 별개로 하고 적극가담자의 경우 주동자인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이 크고 보통, 소극가담자, 방관자일수록 그 영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친구로부터의 영향은 모두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불링 발생상황에서 그 역할에 따라 다르고 적극가담자 등에게서 더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또 다른 조건적 논의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상호작용효과

한편 기존 연구들에서는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가 매우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입장에서는 비행친구가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허위관계라는 주장을 한다. 그 대표적 주장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서는 어려서 형성된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봄으로써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사귀고, 또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지 비행친구와 비행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허위관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를 다룰 때에는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요인을 통제요인으로 다뤄야 한다.

그런데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또 그 관계를 완전히 지지하지도 않는, 그 중간적 입장으로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는 낮은 자기통제력에 따라 조건적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는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접촉한다고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낮은 자기통제력의 성향의 청소년들에게서 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Wright et al., 2001; Ousey and Wilcox, 2007; Mobarake et al., 2014; Hirtenlehner et al., 2015), 즉 이 입장에서 보면 비행친구와 접촉한다 하더라도 자기통제력이 높다면 비행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낮은 자기통제력 두 요건이 있어야 비행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사이버비행 연구를 보면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낮은 자기통제력과 함께 다루었음에도 일반이론의 논의와는 달리 사이버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는 허위관계가 되지 않고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 모두가 사이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이성식, 박정선, 2014). 그리고 사이버비행친구와 낮은 자기통제력은 상호작용효과를 가져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청소년이 자기통제력이 낮을 때 사이버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이 자기통제력과 상호작용을 하는 등 조건적인지의 논의를 다루기로 한다.

III.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카카오톡 이용자를 중심으로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사이버불링을 설명하기 위해 친구관계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 따라 사이버불링친구와 어울릴수록 그와 함께 집단적 불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과 아울러 그 영향이 태도의 학습과정을 통해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집단과정이론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은 집단심리, 책임분산, 응징의 염려 등에 의해 작용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이 태도에 매개없이도 직접적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회이론에 따르면 반드시 사이버불링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친구들과 카카오톡 이용상에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카카오톡 이용상에서 사이버불링친구 여부와 상관없이 친구들과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집단적 불링을 더 저지르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설 1: 카카오톡 이용상에서 사이버불링친구와 접촉할수록 집단적 불링을 더 저지르게 될 것이다.

가설 1-1: 카카오톡 이용상에서 사이버불링친구와 접촉할수록 태도학습을 매개로 집단적 불링을 더 저지르게 될 것이다(차별접촉이론).

가설 1-2: 카카오톡 이용상에서 사이버불링친구의 집단적 불링에의 영향은 태도와 관계없이 직접적일 것이다(집단과정이론).

가설 2: 카카오톡 이용상에서 친구들과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집단적 불링을 더 저지르게 될 것이다(기회이론).

그런데 차별접촉과 기회이론의 두 이론의 통합에서 보면 단순히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보다는 사이버불링친구와 보내는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집단적 사이버불링을 더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과 친구와 보내는 시간의 두 요인은 정(+)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3: 카카오톡 이용상에서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과 친구와의 이용시간과는 집단적 불링에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이 과연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기 위해 이용자의 친구등록수와 혹은 실제 평소 대화를 나누는 친구의 수에 따라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은 어떤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이버불링친구가 있는 청소년이 그 외 다른 친구등록수나 대화하는 친구가 적은 경우 불링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크기보다는 그 크기가 적당할 때 영향력이 있으며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그만큼 사이버불링친구와 비교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불링친구의 영향력은 낮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용자의 친구등

록수와 혹은 실제 평소 대화를 나누는 친구의 수를 하, 중, 상으로 구분할 때 사이버 불링친구의 영향력이 그에 따라 과연 다른지를 살펴볼 것이다.

가설 4-1: 카카오톡 이용상에서 친구등록수에 따라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집단적 불링에의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가설 4-2: 카카오톡 이용상에서 평소 대화하는 친구수에 따라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집단적 불링에의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또한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은 집단적 불링에서 개인의 역할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측한다. 그 역할을 주동자, 적극가담자, 보통가담자, 소극가담자, 방관자로 나누었을 때 주동자 당사자나 방관자 그리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소극가담자에게서보다는 주동자와 가까운 친구관계에 있을 적극가담자(그리고 보통가담자)에게서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가설 5: 카카오톡 이용상에서 집단적 불링의 역할이 적극가담자의 경우에서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집단적 불링에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

또한 일반이론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요인을 함께 다룰 때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이 과연 작아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자기통제력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알기 위해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과 낮은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룰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친구와 접촉하는 청소년이 자기통제력이 낮을 때 집단적 불링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가설 6: 카카오톡 이용상에 집단적 불링에의 영향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과는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14년에 실시한 사이버폭력에 관한 조사자료(심홍진 외., 2014)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의 중고등학교를 다단계층화계통추출법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중학교는 서울 3개교, 경기도 4개교에서 1, 2, 3학년별로 1학급씩, 고등학교는 서울 3개교, 경기도 4개교에서 1, 2학년을 2학급씩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14년 6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고 1,662명이 조사대상이었지만 설문지 회수결과 무응답이 많거나 부적절하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490명 중에서 이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 중에서 카카오톡 사용자로 1,31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룬 집단적 사이버불링은 Williard(2006)의 논의에 기초하여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는 1)욕설, 2)비방/허위사실유포, 3)스토킹, 4)성희롱, 5)신상정보 유출, 6)따돌림, 7)위협/협박 등 일곱 항목에 대해 카카오톡상의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불링의 경험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위의 각각의 경우로 “없음(0)”과 “있음(1)”에 응답하도록 한 후 이것을 합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사람 중에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에 “전혀없다”, “한두명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에 이르는 응답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0-4점을 부여했다.

사이버불링태도는 앞서 사이버불링 항목의 1)욕설, 2)비방과 허위사실유포, 3)스토킹, 4)성희롱, 5)신상정보 유출, 6)따돌림, 7)위협/협박 등 일곱 문항에 대해 각각 “전혀 나쁘지 않다”에서 “매우 나쁘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후 역으로 코딩한 후 합산하였다($\alpha=.983$).

본 연구에서 또 다른 친구관계 요인으로 카카오톡상에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질문하고 그 중에서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의 비율의 질문을 곱하기를 하여 산출하였다.

친구관계 영향의 조건적 변인으로 카카오톡상에서 등록된 친구의 수는 개방형으

로 질문하였고, 아울러 대화하는 친구의 수는 등록된 친구 중에서 하루에 평균 몇 명과 대화하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아울러 집단적 불링에서 개인의 역할로는 응답자가 주동자, 적극가담자, 보통가담자, 소극가담자, 방관자, 피해자, 피해자를 도우려 했거나 도운 자, 그밖에 단체채팅방에서 불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등으로 구분했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여기서는 피해자나 피해자를 도운 자, 비경험자를 논외로 하고 방관자를 기반으로 주동자, 적극가담자, 보통가담자, 소극가담자의 네 개의 더미변수를 만들어 그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의거하여(Grasmick et al., 1993),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현재지향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특성에 대해 두 문항씩의 질문을 하였는데, 예컨대 충동성의 경우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기본대기근대대로 행동한다” 등을 질문하는 식으로 총 열 두개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00$).

통제변인으로는 응답자의 성과 학년으로, 성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학년은 중1부터 고2까지를 1-5점을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총 1,319명중 <표 1>에서처럼 남성은 656명(49.7%), 여성은 660명(50.0%), 3명(0.2%)이 무응답자이었다. 응답자는 중학생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이 대상이었는데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1-5점 범위에서 평균은 3.387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사이버불링친구는 0-4점 범위에서 평균값이 .466이었고, 사이버불링태도는 7-35범위에서 평균값이 11.837이었다. 카카오톡상에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카카오톡 이용시간과 친구의 비율의 곱하기로 0-16시간 범위에서 평균값이 1.080시간이었다. 본 연구의 조건적 변인으로 카카오톡상에 등록된 친구의 수는 0-892명 범위에서 평균값이 204.920명이었고, 그 중 하루 대화하는 친구의 수는 0-90명 범위에서 평균값이 13.240명이었다. 사이버불링역할로는 주동자 14명, 적극가담자 13명, 보통가담자 93명, 소극가담자 47명, 방관자 319명, 피해자

7명, 도움의향자 166명, 도움자 116명, 기타 단체채팅방에서 불링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가 544명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요 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28.240이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사이버불링은 0-7범위에서 평균값이 1.069로 낮았다.

〈표-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명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남성	656	49.7			
여성	660	50.0			
무응답	3	0.2			
학년			3,387	1,398	1-5
불링친구			.466	.760	0-4
태도			11,837	7,727	7-35
친구시간			1,080	1,856	0-16
등록친구수			204,920	128,960	0-892
대화친구수			13,240	14,089	0-90
사이버불링역할					
주동자	14	1.1			
적극가담	13	1.0			
보통가담	93	7.1			
소극가담	47	3.6			
방관자	319	24.2			
피해자	7	.5			
도움의향자	166	12.6			
도움자	116	8.0			
기타	544	41.3			
낮은자기통제력			28,240	9,260	12-60
집단적불링			1,069	1,722	0-7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로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이 집단적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가설 1) 성과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면 <표 2-1>에서와 같이 그 영향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사이버불링친구와 접촉할수록 집단적 불링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시했다. 그 영향이 태도를 매개로 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인지를 알기위해 사이버불링친구와 태도를 함께 설명요인으로

로 했을 때의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2-2>에서와 같이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이 매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가설 1-1보다는 가설 1-2를 지지했다.

아울러 기회이론의 논의대로 카카오톡상에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의 집단적 불링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가설 2) <표 3-1>에서와 같이 그 영향력이 $p<.10$ 수준에서만 유의미하였고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이 $p<.001$ 수준에서 크게 유의미해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보다는 적었다.

<표 2-1> 사이버불링친구의 집단적 불링에 대한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집단적불링	
	b	β
남성	.629***	.186
학년	.085**	.070
불링친구	.770***	.345
R제곱	.172	
F값	85.532***	

* $p<.05$; ** $p<.01$; *** $p<.001$

<표 2-2> 사이버불링친구와 태도의 집단적 불링에 대한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집단적불링	
	b	β
남성	.551***	.163
학년	.066*	.055
불링친구	.744***	.333
불링태도	.035***	.156
R제곱	.197	
F값	75.483***	

* $p<.05$; ** $p<.01$; *** $p<.001$

〈표 3-1〉 사이버불링친구와 친구와 보내는 시간의 집단적 불링에 대한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집단적불링	
	b	β
남성	.661***	.196
학년	.661***	.196
불링친구	.794***	.356
친구시간	.045#	.049
R제곱	.186	
F값	66.492***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2>에서 가설 3의 논의대로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과 친구와 보내는 시간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p < .05$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이버불링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집단적 불링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표 3-2〉 사이버불링친구와 보내는 시간의 집단적 불링에 대한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집단적불링	
	b	β
남성	.674***	.200
학년	.081*	.068
불링친구	.715***	.320
친구시간	.017	.018
불링친구*시간	.072*	.076
R제곱	.190	
F값	54.357***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과연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기 위해(가설 4-1과 4-2) 이용자의 친구등록수와 실제 평소 대화를 나누는 친구의 수를 하, 중, 상으로 구분하고 그것에 따라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4-1>과 <표 4-2>와 같다. 그 결과를 보면 두 경우 모두에서 네트워크 크기에 상관없이 사이버불링친구의 영

향력이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사이버불링친구와 비교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불링친구의 영향력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그러한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4-1〉 카카오톡 등록친구수에 따른 사이버불링친구의 집단적 불링에 대한 영향

	종속변인 집단적불링					
	등록친구수					
	하		중		상	
독립변인	b	β	b	β	b	β
남성	.511***	.180	.314***	.231	.611***	.169
학년	.136**	.147	.027	.020	.013	.009
불링친구	.389***	.173	.803***	.362	.858***	.405
R제곱	.087		.211		.193	
F값	12.501***		34.935***		32.772***	

* $p<.05$; ** $p<.01$; *** $p<.001$

〈표 4-2〉 카카오톡 대화친구수에 따른 사이버불링친구의 집단적 불링에 대한 영향

	종속변인 집단적불링					
	대화친구수					
	하		중		상	
독립변인	b	β	b	β	b	β
남성	.509**	.169	.786***	.217	.584***	*.180
학년	.156**	.149	.192***	.143	-.069	-.061
불링친구	.579***	.129	.736***	.305	.863***	.449
R제곱	.126		.167		.253	
F값	14.509***		32.723***		44.879***	

* $p<.05$; ** $p<.01$; *** $p<.001$

또한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이 집단적 불링에서 개인의 역할에 따라 다른지를 알기 위한 가설 5의 검증결과는 <표 5>에서와 같다. 여기서는 방관자를 기반으로 생성한 주동자, 적극가담자, 보통가담자, 소극가담자의 네 더미변인과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적극가담자와의 상호작용효과에서만 유의미

했다. 이는 적극가담자의 경우에서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주동자나 적극가담자, 그리고 소극가담자와 달리 보통가담자는 독립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해 불링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시했다.

〈표 5〉 카카오톡 불링 역할에 따른 사이버불링친구의 집단적 불링에 대한 영향

	종속변인 집단적불링							
	상호작용역할							
	주동자		적극가담		보통가담		소극가담	
독립변인	b	β	b	β	b	β	b	β
남성	.292	.086	.298	.086	.405*	.111	.354*	.102
학년	.292	.086	.298	.086	.405*	.111	.354*	.102
불링친구	.614***	.307	.613***	.294	.604***	.286	.609***	.289
역할	.965	.110	.674	.078	.974***	.225	.662	.131
친구*역할	-.219	-.051	.860*	.158	.119	.040	.065	.016
R제곱	.132		.194		.221		.147	
F값	9.405***		14.830***		21.698***		11.742***	

* $p<.05$; ** $p<.01$; *** $p<.001$

일반이론의 주장대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고려했을 때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이 과연 약해지는지의 결과를 보면 <표 6-1>에서와 같이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했고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해 사이버불링친구와 사이버불링이 허위관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지되지 못했다. 기존 연구결과들과 거의 유사하게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 모두 유의미했고, 그리고 베타값을 비교해 보면 그 영향력은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도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설 6의 논의대로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자기통제력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알기 위해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과 낮은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표 6-2>에서와 같다. 그 결과는 그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해 사이버불링친구와 접촉하는 청소년이 자기통제력이 낮을 때 집단적 불링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제시했다.

〈표 6-1〉 낮은 자기통제력을 통제한 사이버불링친구의 집단적 불링에 대한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집단적불링	
	b	β
남성	.336***	.111
학년	.024	.022
불링친구	.539***	.269
낮자	.016***	.095
R제곱	.112	
F값	29.692***	

* $p < .05$; ** $p < .01$; *** $p < .001$

〈표 6-2〉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불링친구의 집단적 불링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집단적불링	
	b	β
남성	.684***	.203
학년	.067*	.056
불링친구	.723***	.324
낮자	.021***	.113
불링친구*낮자	.012*	.055
R제곱	.205	
F값	42.212***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이 연구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중심으로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사이버불링을 설명하기 위해 친구관계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려고 했다.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집단과정이론과 기회이론에 따라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과 아울러 단순히 친구들과 카카오톡 이용상에 보내는 시간의 영향을 다루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이 태도학습에 매개됨이 없이 직접적이어서 차별접촉보다는 집단과정이론을 더 지지했으며 기회이론과는 달리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더 크고 단순히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의 영향력은 다소 낮아 사이버불링친구없이 친구들과 단순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집단적 불링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그 통합적 논의로 사이버불링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집단적 불링을 더 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이용상에 네트워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이버불링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불링친구의 영향력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네트워크 크기에 상관없이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은 집단적 불링에서 개인의 역할에 따라 달라 자신이 주동자의 경우나 보통 그리고 단순가담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대신 주동자에게서 영향을 받는 적극가담자일 때 불링친구의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일반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낮은 자기통제력을 통제했음에도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은 유의미했고, 또 한편으로는 사이버불링친구와 접촉하는 청소년이 자기통제력이 낮을 때 집단적 불링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제시해 두 요인이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의 두 요인이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카카오톡 이용상의 집단적 불링에서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제시했으며, 이 결과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왔던 기존 현실기반의 비행연구 결과와 유사해 카카오톡상의 불링은 현실의 연장선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력은 집단적 맥락에서 집단역화과정을 통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통합적 설명으로 사이버불링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사이버불링친구와 어울리는 경우 그 불링 가능성은 더 높은 것을 제시해 통합적 논의가 설득력이 있음을 제시했고 또한 적극가담자에게만 작용해 그 영향이 조건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사이버불링친구에 대한 대처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어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특별히 성향적으로(낮은 자기통제력의) 불링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동자와 가까운 적극가담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동자나 보통, 그리고 소극가담자는 친구의 영향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불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이유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는 사이버불링 현상 중에서도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불링에만 주목한 점에서 그 결과를 사이버불링 전체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더구나 그러한 집단적 상황에서 친구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친구의 영향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기는 했지만 또 다른 설명요인의 추가 등 보다 세밀한 설명을 요한다. 또한 이 연구는 사이버불링친구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사이버불링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비행친구의 영향, 그리고 오프라인과 사이버불링과의 연계성을 다루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채팅방에서의 집단적 불링과 그와 다른 개인적 불링행위간의 설명요인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의 비교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확대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은 (20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비행친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9(4), 133-159.
- 남상인, 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심홍진, 한은영, 박병선, 박남기 (2014).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동기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성식 (2014). 대학생의 사이버일탈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주요 네 이론에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4, 145-168.
- 이성식, 박정선 (2014). 청소년 모바일매체 이용상의 문자폭력 원인: 세 주요 요인들의 통합적 모색. 한국범죄학, 8(3), 3-29.
- 이성식, 전신현 (2000).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의 상황요인과 집단역학과정. 형사정책, 12(1), 155-183.
- 이성식, 전신현 (2015).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6(3), 187-207.
- 이성식, 전신현, 심홍진 (2016). 모바일인스턴트 메신저상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설명을 위한 통합모델의 검증: 배출요인과 촉진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2), 293-314.
- 이승현, 노성호 (2014). 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이창호 (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신현, 이성식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집단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17(11), 159-181.
- Akers, R.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3rd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 Alarid, L. F., Burton, V. S. Jr. and Cullen, F. T. (2000). Gender and crime among

- felony offenders: Assessing the generality of social control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7(2), 171-199.
- Anderson, A.L., and Hughes, L.A. (2009). Exposure to situations conducive to delinquent behavior: The effects of time use, income, and transport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 5-34.
- Briar, S. and Piliavin, I. (1965). Delinquency, situational inducements, and commitment to conformity. *Social Problems*, 13, 35-45.
- Chapple, C.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 89-106.
- Choi, K., Lee, S.S., and Lee J.R. (2017). Mobile phone technology and online sexual harrasment among juveniles in south Korea: effects of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Criminology*, 14(1), 110-127.
- Cohen, L., and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y Review*, 44, 588-608.
- Daigle, L. E., Cullen, F. T. and Wright, J. P. (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5(3), 254-286.
- Gottfredson, M.,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G., Tittle, C.R. Burski, R.J. and Arneklev, B.K.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ynie, D.L. (2002). Friendship networks and delinquency: The relative nature of peer delinquenc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8(2), 99-134.
- Haynie, D.L., and Osgood, D.W. (2005). Reconsidering peers and delinquency: How do peers matter? *Social Forces*, 84, 1109-1130.

- Haynie, D., Doogan, N. J. and Soller, B. (2014). Gender, friendship networks and delinquency: A dynamic network. *Criminology*, 52(4), 688-722.
- Heimer, K. (1996). Gender, interaction, and delinquency: Testing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1), 39-61.
- Higgins, G., Fell, B. and Wilson, A. (2007). Low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in understanding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movi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5(3), 339-357.
- Hirtenlehner, H, Pauwels, L. and Mesko, G. (2015). Is the criminogenic effect of exposure to peer delinquency dependent on the ability to exercise self-control? Results from three countri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 532-543.
- Marcum, C. D., Higgins, G. E., Freiburger, T. L. and Ricketts, M. L. (2014). Exploration of the cyberbullying victim/offender overlap by sex.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9(3), 538-548.
- Matsueda, R.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489-504.
- McCuddy, T and Vogel, M. (2015). Beyond Traditional Interaction: Exploring the functional form of the exposure-offending association across online network siz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 89-98.
- McGloin, J.M., and Piquero, A.R. (2009).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offending network redundancy and offending versatilit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7(1), 63-90.
- Meier, R.F. and Miethe, T.D. 1993. Understanding theor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Crime and Justice*, Vol 15, A.J. Reiss and M. Tonry(e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ldrum, R.C. and Clark, J. (2015). Adolescent virtual time spent socializing with peers,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Crime and Delinquency*, 61(8), 1104-1126.

- Mobarake, R., Juhari, R., Yaacob, S., and Esmaeili, N. (2014). The moderating role of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ffiliation and adolescents antisocial behavior in Teheran, Iran. *Asian Social Science*, 10, 71-81.
- Osgood, W., Wilson, J., O'Malley, P., Bachman, J., and Johnston, L.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635-655.
- Ousey, G., and Wilcox, P. (2007). Interactions between antisocial propensity and life-course varying correlates of delinquent behavior: Differences by method of estim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ory. *Criminology*, 45, 401-442.
- Piquero, N. L., Gover, L., Piquero, A. and Macdonald, J. M. (2005).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cy: Does Gender Matters?. *Youth and Society*, 36(3), 251-275.
- Reicher, S.D., Spears, R. and Postmes, T. (1995). A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phenomena. In W. Stroebe and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6. Chichester: Wiley.
- Skinner, B.F. and Fream, A.M.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analysis of computer crim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495-518.
-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 War, M., and Stafford, M. (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 851-866.
- Weerman, F.M., Bernasco, W, Bruinsma, G. and Pauwels, L. (2015). When is spending time with peer related to delinquency? The importance of where, what, and with whom. *Crime and Delinquency*, 61(10), 1386-1413.
- Willard, N.E. (2006).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Eugene,

OR: Center for the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Wright, B., Capsi, A., Moffitt, T., and Silva, P. (2001). The effects of social ties on crime vary by criminal propensity: A life-course model of interdependence. *Criminology*, 39, 321-351.

Zimmerman, G. M. and Messner, S. F. (2010). Neighborhood Context and the Gender Gap in Adolescent Violent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6), 958-980.

Testing the Conditional Effect of Friendship on Cyber Group Bullying in Kakao-Talk Messenger

Lee, Seong-sik*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riendship on cyber group bullying in Kakao-talk messenger and test the effect of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 This study also tests the effect of messenger usage time with peer and an integrated hypothesis that those who have more time with cyber bullying peer are more likely to commit cyber group bullying.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whether the effect of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 is different across both the size of network and group bullying role. Furthermore, it test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 and low self-control on cyber bullying. Using data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Seoul and Kyunggi area, results show that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yber group bullying.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ect of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 is direct and stronger than messenger usage time with peer and support an integrated hypothesis that their interaction effect of usage time with cyber bullying peer has a significant. It is shown that the effect of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 on cyber group bullying is not different across the friendship network size, but its effect is larger in active bullying participator.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the effect of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 is significant, even though low self-control is controlled, and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results, it is reveal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 and low self-control on cyber group bullying is significant.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 on cyber

*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group bullying is large and conditional.

❖ key words: Cyber group bullying, Mobile messenger, Friendship, Conditional effect

